

# 근대 역사학의 탄생과 신라의 시각화

김유신은 어떻게 민족기록화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

김예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한국회화사 전공

heesoo25@gmail.com

---

## I. 머리말

II. 식민지의 고대 왕국 신라

III. 냉전문화 구축과 신라의 재발견

IV. 1970년대 화랑도와 김유신

V. 맷음말

---

## I. 머리말

---

2024년 6월 한 보수 논객은 ‘홍범도함’ 명칭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면서, 신라야말로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적 정통성을 갖춘 왕조이며 고구려에 계보를 대고 있는 북한과 차별된다고 역설했다. 기사 머리에서는 “김일성 세력과 신채호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한민족(韓民族)을 만든 김유신!”이라는 구호도 함께 있었다.<sup>1</sup> 흥미로운 것은 ‘김유신’에 비판적이었던 신채호(1880~1936)를 북한 역사학의 동조자로 치부하면서, ‘김유신’을 통일신라-고려-조선-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기틀을 확립한 영웅으로 추켜 세운다는 것이다. 남북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기 다른 역사적 계보를 강조하며 역사 인식의 무장을 촉구하는 논설은 반세기 전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이 연구는 민족기록화의 내용을 해석하거나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다루지 않는다. 다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 간의 입장 차에 따라 김유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지점에서 필자의 문제의식이 출발했음을 밝혀 두고 싶다. 신채호에 의해 폄하되었던 신라의 삼국통일이 박정희 시대에 와서 민족의 대업으로 숭모(崇慕)된 배경에는 국민통합과 대중교화라는 당대적 과제가 중요하게 작동했고, 이를 실천하는 도구로서 영웅 서사와 시각이미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박정희 정부에서 1978년 경주 통일전을 건설하고 김유신의 위공(偉功)을 과시하기까지 신라

---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3-P02).  
이 글을 꼼꼼히 검토하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1 「김유신함’은 없고, ‘신채호함’‘홍범도함’은 있다!」, 《월간조선》, 2024년 5월 23일,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406100037>(검색일: 2024.7.16).

의 역사와 김유신의 행적이 미술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화가와 조각가들이 역사를 기록하도록 추동(推動)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 박정희 정권기까지 세 시기로 나누어 신라의 고도(古都) 경주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삼국통일을 이끈 화랑정신이 재평가되며 김유신이 민족의 영웅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신라와 김유신의 이미지가 일제의 동화정책과 국가 총동원 체제, 이승만 정부의 일민주의(一民主義),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미술 작품 속에 재현되었는지 검토하고, 1970년대 민족기록화사업 시기에 제작된 통일전 '삼국통일 위인유적 기록화'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도록 하겠다.

## II. 식민지의 고대 왕국 신라

### 1. 조선의 로마, 경주

"경주여, 경주여. 십자군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마음은 지금 나의 마음이리라. 나의 로마는 눈앞이다."<sup>2</sup>

1906년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주 지역 고분을 조사한 이마니시 류[今西龍](1875~1932)는 자신을 예루살렘 정복을 목전에 둔 십자군에 비유했다. 그는 대학원생 신분으로 경주에 방문하여 동천동 북산고분과 황남동 144호

2 今西龍, 『新羅史研究』(近澤書店, 1933), 5쪽; 황종연, 「신라의 발견: 근대 한국의 민족적 상상물의 식민지적 기원」, 황종연(편), 『신라의 발견』(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27쪽에서 재인용.

분을 조사했다. 경주에는 1902년 세키노 다다시[関野貞](1868~1935)가 처음 조사를 한 이후 일본인 고고학자들이 고분 발굴을 위해 방문하기 시작했고, 1916년 고적조사 5개년 사업이 착수되면서 경주 지역 고적조사도 더욱 활기 를 띠었다. 1916년 고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고고학 조사가 시작 될 때 이마니시 류는 세키노 다다시,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1880~1950),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1874~1946), 도리이 류조[鳥居龍藏](1870~1953),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1890~1983) 등과 함께 고적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1933년 이마니시 류가 저술한 『신라사연구』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부정하고 『일본서기』의 내용을 수용하여 신라를 백제와 함께 일본의 식민지로 규정하며 일본 식민통치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sup>3</sup>

동화주의를 표방한 일본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동일한 선조, 거주지역, 풍 속과 신앙 등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여 일본의 조선 지배를 합리화하고자 했다.<sup>4</sup> 그리고 총독부 주도의 고적조사사업을 통해 임나일본부설의 물증을 찾아 식민 지배의 논리를 다지는 작업을 했다. 경주는 진구황후[神功皇后]가 직접 정복한 곳이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1536~1598)가 조선 정벌 때 침공한 곳이며, 일본에 인질로 갔던 신라의 왕자가 있던 곳으로서 일본의 옛 식민지였다고 선전했다.<sup>5</sup> 문화통치 시기에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통 치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신라와 경주의 고적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1920년대에는 일제의 유화정책으로 신문과 잡지가 잇달아 출현하면서 조

3 장일규, 「신라 고적 왜곡상」, 김창겸·김덕원·박남수·채미하·장일규·강희정, 『일제강점기 언론의 신라상 왜곡』(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202쪽

4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서울: 혜안, 2007), 94쪽.

5 「慶州ノ古蹟ニ就テ」, 《조선총독부월보》 2-11(1912년 11월호), 53~54쪽; 장일규, 앞의 글 (2017), 209~210쪽에서 재인용.

선 역사의 대중화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신라는 단군조선과 함께 조선인들에게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역사적 모범으로 부상했다. 신라의 수도 경주는 조선인에게 민족적 긍지를 북돋우는 사적이 되었고 학생들과 시인 묵객의 탐방이 이어졌다.<sup>6</sup> 1921년 우연히 발견된 금관총을 시작으로 신라 고분이 잇달아 발굴되면서 화려한 부장품이 출토되었고, 이를 보도하는 기사가 급증하면서 신라 고적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커졌다.<sup>7</sup> 1920년대 석굴암과 불국사 는 보수공사와 도로 정비를 거치며 관광지로 개발되었고, 경주를 찾은 일본 관광객들은 식민지의 이문화를 둘러보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 성과를 체감했다.<sup>8</sup> 일본은 불국사와 석굴암으로 대표되는 신라 예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를 제국 일본의 지역문화로 편입시키고 일본이 주도하는 대동아권에 속한 동양 예술로 취급했다.<sup>9</sup> 그리고 경주 시가(市街)를 정비하고 유적을 복원하면서 선진 문명국인 일본이 야만의 식민지 조선에 시혜를 베풀다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유포했다.<sup>10</sup>

한편, 1910년 일제강점 무렵 조선에는 사회진화론이 유행하고 상무 정신이 고조되면서 비스마르크, 워싱턴, 나폴레옹,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강감찬, 최영, 이순신과 같이 국가의 독립, 국력의 신장, 외침의 극복을 이끈 지도자나 무장이 선양(宣揚)되었고, 신채호의 『을지문덕』(1908), 『이순신 전』(1909), 『최도통 전』(1910), 우기선(禹基善)의 『강감찬 전』(1908), 박은식(1859~1925)의 『천개소문전』(1911) 등의 위인전이 저술되었다.<sup>11</sup> 또 1920,

6 황종연, 앞의 글(2008), 17~29쪽.

7 이 시기 대표적인 기사들은 장일규, 앞의 글(2017), 179~183쪽과 188~193쪽 참조.

8 김현숙, 「근대 시각문화 속의 석굴암」, 황종연(편), 앞의 책(2008), 92쪽

9 김신재, 「1920년대 경주의 고적 조사·정비와 도시변화」, 『신라문화』 38(2011), 342~343쪽.

10 강희정, 「신라 ‘경주신화’ 왜곡상」, 김창겸 외, 앞의 책(2017), 218~219쪽.

11 이지원, 앞의 책(2007), 80쪽.

30년대에는 역사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하며 이광수(1892~1950)의 『마의태자』(1926), 『단종애사』(1928), 『이순신』(1931), 김동인(1900~1951)의 『대수양』(1941), 박종화(1901~1981)의 『목매이는 여자』(1923), 현진건(1900~1943)의 『무영탑』(1939) 등이 발표되었고, 1931년 《동아일보》가 이순신 묘각(墓閣)을 보수하기 위해 전개한 모금 운동을 시작으로 권율, 단군, 을지문덕의 유적을 보존하는 위인 선양 운동이 일어났다.<sup>12</sup> 하지만 김유신을 다룬 근대 소설은 1940년대 이후 윤승한(1909~1950)의 『김유신』(1943), 이동규(1911~1952)의 『대각간 김유신』(1944)에 이르러서야 등장하며 대중적인 서사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sup>13</sup>

이처럼 신라 문화가 조명되고 위인 선양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도 김유신의 무공이 적극적으로 조명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1910, 1920년대 민족주의 사학자의 역사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역사학자 신채호는 단군 중심의 역사관을 계승하여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등 고대 국가를 모두 단군의 후예로 간주했고 발해사를 한국사에 편입하면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sup>14</sup>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김유신은 지략과 용기가 있는 명장(名將)이 아니라 음험하고 무서운 정치가였으며, 그 평생의 공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음모로 적국을 혼란에 빠뜨린 데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쓸 정도로 김유신에 매우 비판적이었다.<sup>15</sup> 신채호를 비롯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조선사를 조선반도 남부의 역사로 바라보고 신라 중심의 한국 고대사를 만들려 한 일본인 연구에 대항하여 북방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하야시 다이스

12 위의 책, 316~324쪽.

13 임선애, 「한국문화와 김유신의 재현양상」, 『신라사학보』 11(2007), 142~146쪽.

14 박남수, 「신라 역사지리 왜곡상」, 김창겸 외, 앞의 책(2017), 61~62쪽.

15 신채호(저), 박기봉(역), 『조선상고사』(서울: 비봉출판사, 2006), 510쪽.

케[林泰輔](1854~1922)가 1892년 『조선사』를 저술하면서 백제·고구려의 멸망과 신라의 통일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부각한 아래, 나당전쟁에서 승리하며 삼국통일을 완수한 신라의 역사를 강조하여 청에 대한 조선의 종속관계를 단절하고자 했다.<sup>16</sup> 조선인 역사학자들은 황의돈(1890~1964)의 『신편조선역사』(1923), 안화(1886~1946)의 『조선문명사』(1923), 문일평(1888~1939)의 「장편신라사(掌篇新羅史)」(1935)에서 보듯 1920년대 이르러서야 신라의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김유신이 1940년대에 갑자기 역사 영웅으로 부상한 것도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과 관계가 깊었다. 1940년대에는 국가 총동원 체제가 수립되고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은 무사도적 일본 정신을 설파하는 전거로서 신라의 화랑도를 활용했다. 일본의 무사도와 조선의 화랑도는 본래 하나였다가 이후에 나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sup>17</sup> 과거 대한제국기에도 화랑도는 유교의 문약(文弱)에 대비되는 ‘송무정신(崇武精神)’의 표상이었고 신채호는 화랑정신을 국수(國粹)로 이해하여 ‘낭가사상(朗家思想)’으로 발전시키려 했다.<sup>18</sup> 그런데 1930년대 이후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1864~1946), 미시나 쇼에[三品彰英](1902~1971)와 같은 일본인 학자들이 화랑을 연구하고 일본 무사도와 화랑도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화랑도는 내선일체론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sup>19</sup> 특히, 1943년 ‘반도인 학도 특

16 윤선태,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 역사학의 성립」, 『신라문화』 29(2008), 129~130쪽.

17 정종현, 「국민국가와 ‘화랑도’: 대국계몽기~대한민국 건국기의 ‘화랑’ 담론과 활용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4(2006), 188쪽.

18 신채호의 낭가사상에 관해서는 박찬승, 「근대 일본·중국의 ‘무사도’론과 신채호의 ‘화랑’론」, 『충청문화연구』 5(2010), 90~97쪽 참조.

19 아유카이 후사노신은 화랑도를 왜곡하여 한국의 민족문화를 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화랑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했던 당시 민족주의자들을 의식한 것이었다. 미시나 쇼에의 경우 일제의 총동원체제를 의식하여 징병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조범환,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신라 화랑 연구」, 『신라사학보』

별 지원병제도’가 실시되고 각계 명사들이 학병의 출진을 독려하면서 ‘화랑도’를 인용했고,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살아 돌아온 원술을 끝내 만나 주지 않았다는 지소 부인의 이야기를 모델로 조선 여성들에게 ‘군국의 어머니’ 되기를 요청했다.<sup>20</sup> 화랑정신을 무사 정신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해방 후 한국군의 창설로까지 이어지는데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 2. 조선미술전람회와 신라 이미지

20세기 초 미술작품에서 가장 먼저 재현된 역사 영웅은 이순신이었다. 1918년 안중식(1861~1919)이 그린 〈한산충무(閑山忠武)〉(그림1)에는 달 밝은 밤에 이순신이 누대에 흘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우측 상단 여백에 적힌 이순신의 ‘한산도가(閑山島歌)’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안중식이 잡지 《청춘》 제4호(1915)에 유사한 도상의 이순신 삽화를 그린 이력이 있다는 사실은 출판물의 위인 삽화와 역사 인물화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케 해준다.<sup>21</sup>

문학에서 김유신 서사가 1940년경에야 활발히 창작된 것과 달리, 미술에서는 1922년 조선미술전람회의 창설과 함께 바로 등장했다. 총독부가 조선미술전람회를 개설할 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이도영(1884~1933)은 참고품

17(2009), 67~69쪽.

20 최남선, 「보람있게 죽자: “臨戰無退” 空論無用」, 『매일신보』, 1943년 11월 4일; 이병도, 「出陣學徒에게 보내는 말」 어머니의 군센 격려, 전투 용기를 백 배나 더하게 한다, 『매일신보』, 1943년 11월 26일; 香山光郎(이광수), 「元述の出征」, 『신세대』, 1944년 6월호: 정종현, 앞의 논문(2006), 189~193쪽에서 재인용.

21 현체의 『유년필독』을 비롯하여 계몽운동기 교육용 도서에도 김유신을 포함한 역사 인물 삽화들이 실렸지만 이 글에서는 일반 회화를 중심으로 근대 역사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현체의 『유년필독』에 나타난 역사 인물 관해서는 박계리, 「한국 근대 역사인물화」, 『미술사학보』 26(2006), 35쪽 〈표3〉 참조.



그림1-안충식, 〈한산충무〉,  
1918, 비단에 색,  
48.5×154.5cm,  
간송미술관 소장

으로 〈석굴수서(石窟授書)〉(그림2)를 출품했다. 〈석굴수서〉는 김유신이 삼국통일의 뜻을 품고 석굴에 들어간 뒤 신인(神人)을 만나 비서(秘書)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신라 진평왕 28년 김유신이 17살 때 이웃 나라가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비분강개하여 적을 평정하려는 뜻을 품었다. 홀로 중악의 석굴에 들어가 재계하고 하늘에 고하여 맹세하며 “미약한 신하가 재력을 헤아리지 않고 화란을 없애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하늘이 굽어살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4일이 지나지 홀연히 노인이 와서 “귀한 소년이 홀로 와서 거처하니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다. 김유신이 고하여 말하길 “어르신께서는 저의 정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방술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노인이 묵묵히 말이 없자 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청원하기를 예닐곱 번에 이르렀다. 노인이 마침내 “그대가 어린데도 삼국을 병합하려는 마음을 가지니 장하지 않은가”라고 말하고 바로 비서를 주었다.

임술년(1922) 음력 4월 관재 이도영.<sup>22</sup>

<sup>22</sup> “新羅 貞平王二十八年 金庚信年十七 見隣邦之侵軼國疆 慷慨有平寇賊之志 獨行入中嶽石窟 齊戒告天盟誓曰 微臣 不量材力 志清禍亂 惟天降監 居四日 忽一老人來曰 貴少年爰來獨處何也 告以故曰 長者憫我精誠 授之方術 老人默然無言 公涕淚懇請至于六七 老人方言曰 子幼而有并三國之心 不亦壯乎 乃授以秘法 廿戌 清和月 貫齋 李道榮”.



그림2-이도영, <석굴수서>, 1922, 비단에 색, 30.8×39.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3-이도영, <정물(고색찬연)>, 1922

이도영은 그림의 우측 상단에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었고 이를 충실히 묘사했다. 일제에 의해 창설된 관전(官展)에서 이도영은 조선인 화가들의 출품을 독려하고 출품작의 심사를 맡았다. 그리고 김유신 고사를 소재로 한 <석굴수서>와 역사 기명을 그린 <정물>을 참고품으로 출품하면서 전람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도영이 김유신의 고사를 다루면서 용맹한 무사의 전투 장면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수련하는 모습을 그린 까닭은 무엇일까. 당시 미술 감상층이 제한적인 데다 체계적으로 화가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 장면을 다룬 역사화는 당시 관람객에게 낯설 뿐만 아니라 신진화가들이 제작하기에도 부담

스러운 화목(畫目)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유신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영웅으로 탄생하는 순간을 전통적인 고사인물화의 형식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 그림은 신라 관련 설화를 소재로 했고 청록산수화풍을 사용해 기적이 일어나는 공간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전(傳) 조속(1595~1668)의 〈금궤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를 연상시킨다.

이도영이 이 그림과 함께 출품한 〈정물〉(그림3)에 보이는 각종 토기는 『조선고적도보』의 유물을 참고한 것으로 당시의 고분 발굴 성과를 보여 준다. 이 밖에도 잡지 《여시(如是)》의 창간호에 실린 〈아(我)〉(1928), 경기도박물관 소장 〈나려기완(羅麗器玩)〉(193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옥당청품(玉堂清品)〉(1931)에 그려진 기명도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과 『조선고적도보』의 사진을 참고한 것이다.<sup>23</sup> 뿐 모양 손잡이가 달린 토기와 무궁화를 통해 ‘민족’을 형상화한 〈아(我)〉에서 보듯 신라 유물은 민족문화의 기표로서 1920, 1930년대 이도영의 그림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또 1929년 ‘제9회 서화협전’에 출품한 〈석굴암관음상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는 석굴암 십일면관음상을 철선표로 세밀하게 묘사한 뒤 담채로 명암을 표현한 작품으로 이도영의 관심이 신라의 역사, 유물, 사적에 고루 미쳐 있었음을 보여준다. 1929년에는 대구에서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1870~1964), 모로가 하데오[諸鹿央雄](?~1954), 이치다 지로[市田次郎], 시라카미 주키치[白神壽吉] 등 대표적인 개인소장가의 비장품을 모은 ‘신라예술품전람회’가 열려서 큰 주목을 받았고,<sup>24</sup> 같은 해 역사학자 황의돈은 신라 문명이 가장 원숙한 시

23 김예진, 「이도영의 정물화 수용과 그 성격: 사생과 내셔널리즘을 통한 새로운 회화 모색」, 『미술사학연구』 296(2017), 192~193쪽.

24 ‘신라예술품전람회’는 1일 관람객이 평균 약 1,000명에 이를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도쿄 만선시찰단을 비롯한 일본 관람객들도 방문했다. 김예진,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한국 고미술품 컬렉션」, 박정혜·신선영·제송희·김예진, 『한국미술, 세계와 만나다: 근대기 외국인 컬렉터 연구』(서울: 민속원, 2020), 256~261쪽.

기를 ‘황금시대’라고 일컬었는데,<sup>25</sup> 이도영의 그림에는 신라 유물에 대한 당대의 고조된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이도영의 기대와 달리, 20여 년간 이어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조선의 역사나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그림은 많지 않았다. 현재 도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선작들을 놓고 본다면, 대개가 사생풍의 인물화, 산수화(풍경화), 정물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1925년 제4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된 미토 쿠스케[三戸俊亮]의 <신라석씨의 시조[新羅昔氏の始祖]>(그림4)나 이토 슈호[伊藤秋畝]의 <제물(たむけ)>, 독혜(禿惠)의 <룸비니동산 탄생도[藍比園降誕の圖]>와 같이 일본인 화가들이 역사와 설화를 소재로 그림 작품들을 출품한 것과 대조적이다.<sup>26</sup> 조선인 화가의 출품작으로는 최우석의 <포은공>(1927, 특선), <이충무공>(1928), <고운 선생>(1930, 특선), <을지문덕>(1932), <동명(東明)>(1935)과 박래용(朴來鏞)의 <김립 선생>(1934)과 같은 역사 인물 초상화가 발견된다.

역사화의 범주에 넣기는 어려우나 1920년대에는 김유신의 초상화가 다수 제작되었다. 1923년 조선흥문사(朝鮮弘文社)에서 편찬한 『조선고금명화전(朝鮮古今名賢傳)』과 1926년 니시무라 도모오[西村友雄]가 펴낸 『조선명현초상화사진첩(朝鮮名賢肖像畫帖)』(1926)에 실린 <홍무왕(興武王) 김유신(金庾信)>은 그림의 제작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김유신 초상을 첫 번째로 소개한 데에서 당시 일본 역사학계의 시각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

25 황의돈, 「과거사연구: 신라의 친연한 문명과 신라민중의 영화, 그 서울 경주는 엊더하였나 (1)」, 『삼천리』, 1929년 6월 12일, 제1호 논설.

26 일본에서는 1880년대에 역사화가 대두했고 1900년대에서 1920년대에는 식민지 확장정책에 따라 고조된 동양주의의 영향으로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설화를 이국적으로 표현한 그림들이 제작되었다. 정연경, 「일본 근대 역사화: 미술과 권력의 구조적 문제」, 『기초조형학연구』 15(1914), 598~6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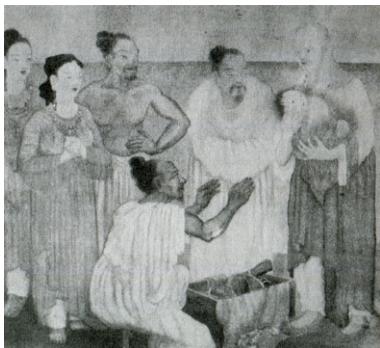


그림4-三戸俊亮, <新羅昔氏の始祖>, 1925



그림5-채용신,  
<김유신 영정>, 1920년대,  
비단에 색, 126×77.5cm,  
진주 남악서원 소장

다.”<sup>27</sup> 또 1921년 채용신이 제작한 <김유신 영정>(그림5)이 전하는데 이는 진주 남악서원에 배향된 그림으로서 감상 및 교화용으로 제작되는 역사 인물화와 성격을 달리한다. 하지만 1920년대 초 신라사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김유신이 존숭되기 시작하는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이다.<sup>28</sup>

설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김유신의 천관녀 고사를 소재로 한 역사 인물화

- 27 두 책에는 동일한 도상의 김유신 초상화가 실려 있다.『조선고금명화전』은 1922년에 간행된 초판본에는 최치원만 그려졌으나 이후에 김유신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경성에 소재했던 朝鮮弘文社는 『朝鮮名人傳』(1922), 日高友四郎의 『(新編)朝鮮地誌』(1924), 日高友四郎의 『朝鮮八道誌』(1924) 등을 출간했고 주로 일본인이 저술한 조선 역사, 지리 관련 연구서를 간행한 출판사로 짐작된다.
- 28 이 그림은 상단에 ‘開國公金先生影像’이라는 제목이 있고 뒷면에는 채용신의 자필 묵서가 있다. 1921년 4월에 제작된 이 그림은 현재 전하는 김유신 영정 가운데 제작 연대가 가장 이른 예로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80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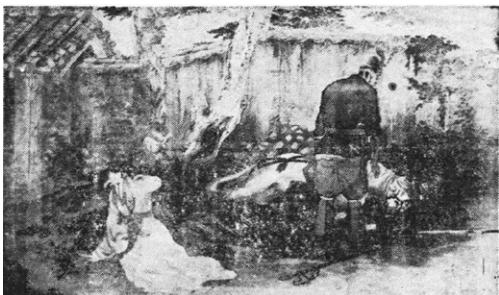


그림6-이여성, <유신참마도>, 1938년경



그림7-이여성, <고무도>, 1939년경

로 이여성(1901~?)의 <유신참마도(庾信斬馬圖)>(1938년경)가 있다. 1938년 새해를 맞아 《조선일보》기자가 역사화 제작에 몰두하던 이여성을 취재하고 아틀리에 벽에 걸려 있던 <유신참마도>(그림6)와 <격구도>(마사박물관 소장)를 지면에 소개했다.<sup>29</sup> 이여성은 복식 연구를 위해 신라의 <유신참마도>와 조선의 <대동여지도 작자 고산자>를 비롯하여 고구려, 고려 등 각 시대의 역사와 인물에서 주제를 취하여 “눈으로 보는 조선 풍속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신라 장보고의 이야기를 그리기 위해 『삼국사기』, 『신당서(新唐書)』,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등 한·중·일 사서와 금관총, 식

29 「북은 朝鮮의 새香氣 畵壇篇」, 《조선일보》, 1938년 1월 8~9일.

리총, 양산부부총 등 고분 출토품을 참고했다고 밝힌 데에서 당시 역사학과 고고학 성과가 역사화 제작의 자극제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듬해 동아일보에 소개된 이여성의 〈고무도(古武圖)〉(그림7)에서 무장의 모습은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 Louis David, 1748~1825)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연상시키며 서양화의 영향을 보여준다.<sup>30</sup> 이 밖에도 신라의 역사 인물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정종녀의 〈선덕부인 초상〉(1941)이 사진으로 전한다. 이 그림을 발원(發願)한 대구 부인사는 선덕여왕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로 1930년대 초에 한차례 중건되었는데,<sup>31</sup> 정종여가 전각의 외부 벽면에 그린 〈선덕부인 초상〉은 불교를 진홍하여 외침을 극복하고자 한 선덕여왕의 위업을 형상화한 기념비적인 역사인물화이다.

일제강점기 조선미술전람회의 창설을 기점으로 역사화를 장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조선인 화가들의 역사화 제작이 활기를 띠지 못한 것은, 화가들이 여전히 전통 서화의 화목(畫目)에서 탈피하지 못했거나 서구에서 유래한 역사화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식민지 동화정책의 영향으로 조선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조선 관광 붐과 조선 이주 정책이 고조되고 조선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면서 일본인 화가들이 조선의 명승지, 풍속, 역사 및 신화를 다룬 그림을 다양하게 제작했던 상황과 대비된다. 하지만, 문학과 역사학에서 김유신 관련한 기술(記述)이 1940년대에야 활발해지는 데 반해, 미술에서는 1920년대 초부터 김유신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앞서 계몽운동기에 제작된 교육용 도서의 삽화, 조선총독부가 주관하는 조선미술전람회가 자극제 역할을 했다.

30 박계리, 앞의 논문(2006), 46쪽; 「씨름·줄다리기·그네·弓術의 由來」, 《동아일보》, 1939년 1월 3일.

31 「부인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daegu.grandculture.net/daegu/toc/GC40020887?requestBy=%ec%a0%84%ea%b5%ad>(검색일: 2024. 11. 1).

### III. 냉전문화 구축과 신라의 재발견

---

#### 1. 남북한 역사전쟁과 화랑도

분단 후 남북한은 각각 다른 이데올로기 위에 민족적 전통을 세우고자 했고 문화유산과 역사를 둘러싼 경합을 벌였다. 1948년 단독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문화유산을 활용해 북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1956년 『조선통사』를 간행했다.<sup>32</sup> 남한이 이에 대응하는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동안,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일이 자유주의 수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한 아시아재단에서도 문화유산 보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sup>33</sup>

이용민과 김재원이 1952년 신라 고분 발굴을 다큐멘터리로 촬영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하자 아시아재단 한국지부는 제작비 500달러를 지원했고, 국립박물관의 출판물 제작 기금을 지원하여 김원룡의 박사학위논문 『Studies on Silla pottery』(1960)와 김재원·윤무병의 『감은사: 신라의 사원』(서울: 을유문화사, 1961)이 출판되었다.<sup>34</sup> 아시아재단의 지원을 받은 국립박물관 출판물이 모두 신라와 관련된 연구물이라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한정된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었고 신라의 문화유산은 자유주의 진영의 유산으로 새로운 가치를

---

32 정종현, 「1950년대 아시아재단의 민족문화유산 지원 연구」, 『한국학연구』 52(2019), 134쪽.

33 자유아시아위원회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보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각 민족 고유의 역사와 특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의 정체성과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문화지도자의 임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순진, 「아시아재단의 한국에서의 문화사업: 1954년~1959년 예산서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0(2016), 25쪽.

34 정종현, 앞의 논문(2019), 141~149쪽.

획득해 나가고 있었다.<sup>35</sup>

경주의 문화유산은 해방 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정비되었다. 1947년 4월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 5일간 경주를 탐방하는 경주고적 탐방회가 문교부 교화국과 운수부 철도운수국 후원으로 개최되었다.<sup>36</sup> 9월에는 “신라 시대의 과거를 다시금 회상하고 조국의 앞날을 한충 빛내고자” 경주에서 신라제(新羅祭)가 개최되었고 신문에는 경주기행문이 연재되었다.<sup>37</sup> 1949년에는 경주 고분의 도굴이 심해지자 대통령의 지시로 담화를 발표한 뒤 대통령령으로 국립공원 공사를 착수했다.<sup>38</sup> 국립공원 조성 계획은 한국전쟁 발발로 중단되었으나 전쟁 중에도 경주 지역에는 관광객들의 탐방이 이어졌다. 국립박물관은 부산 피난 중에도 각지의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고 경주, 부여, 공주에 있는 박물관 진열실을 정비했다. 경주의 경우 건천읍 금척리 고분, 황오리 고분, 노서리 제138호분이 발굴·조사되었고, 경주박물관은 1952년 한 해 동안만 4만 8,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sup>39</sup> 경주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인 관광지였고, 1952년에는 경주에 국립공원 조성계획이 재추진되었다.<sup>40</sup> 국립공원이 개발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계획들이 발표되면서 경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

35 위의 논문, 151~153쪽

36 「경주고적탐방회」, 《경향신문》, 1947년 4월 16일.

37 「新羅祭來五日舉行」, 《동아일보》, 1947년 9월 23일; 千玉煥, 「경주기행초」 상~하, 《경향신문》, 1947년 11월 6~20일.

38 「경주고분에 대해—이공보처장 담화」, 《경향신문》, 1949년 7월 18일; 「경주에 국립공원」, 《조선일보》, 1949년 12월 6일.

39 장상훈, 「국립박물관의 광복동 시대」, 《박물관신문》, 2019년 8월 1일, <https://webzine.museum.go.kr/sub.html?amIdx=13489>(검색일: 2024. 11. 1.).

40 「관광사업추진—불국사등 호텔 수리」, 《경향신문》, 1952년 4월 14일; 「경주국립공원삼개년계획」, 《조선일보》, 1953년 9월 14일; 「경주·마산간 관광기동차운행」, 《경향신문》, 1955년 5월 24일; 「하와이교포단離京 불국사부산등탐방」, 《경향신문》, 1955년 10월 28일.

로 부상했고 ‘신라’와 ‘경주’는 국민들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의 금년도 목표는 실지(失地) 회복이며 이에는 무기무장(武器武裝)보다 사상무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럼으로써 문교부에서는 금년은 일민주의를 더욱 보급시키는 동시에 이를 국민에게 넓이 선전 계몽할 작정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국립극장을 시민관으로 결정을 보았는데 이 국립극장에서는 연극 공연을 주로 하고 가극 교향악 국악 등을 상연하게 될 것이며 또 국립국악원 직제가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예산도 다 계상(計上)되어 있으니 오는 3, 4월 경에는 이것이 공포되어 그 신발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 세간에서 경주 고적 수리공사가 잘못되고 있는 듯이 전하여지고 있으나 그것은 전혀 낭설이라고 말한 다음에 경주에 국립공원도 설계중이라고 부인하였다.<sup>41</sup>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월 경주국립공원 계획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국립공원 건설, 국립극장 개관, 국립국악원 설립 등의 추진 배경은 실지(失地) 회복을 위한 사상 무장에 있으며 이를 위해 일민주의(一民主義)를 보급하여 국민을 계몽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사상 무장’을 위해 1950년 태평로의 부민관에 문을 연 국립극장은 개관 기념으로 유치진의 연극 〈원술랑〉을 상연했고 5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연극 〈원술랑〉은 “모든 디테일이 애족(愛族)의 정신이라는 굳센 테마로 하나의 끈에 끼어”져 있다는 평을 받았고, 연극을 보고 감격한 월남 군인은 “맹세 실지회복 목표 백두산 화랑”이라는 혈서를 써서 국립극장에 보냈다.<sup>42</sup> 〈원술랑〉은 국가를 가족의 우위에 두는 김유신과 원술 부자의 영웅적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1950년대 초반 해방

41 「경주에 국립공원——民主義 보급에 전력」, 《동아일보》, 1950년 1월 5일. 밑줄은 필자.

42 오영진, 「元述郎’을 보고」, 《경향신문》, 1950년 5월 3일; 「연극보고 감격한 월남군인의 혈서」, 《동아일보》, 1950년 5월 29일.

공간의 사회적 혼란을 애족정신으로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민주의는 국민을 통합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할 새로운 이념으로서, 같은 혈통과 운명을 가진 민족공동체라는 사회상을 제시했다. 일민주의 이념을 이론화한 인물은 초대 문교부 장관인 안호상(安浩相, 1902~1999)으로 그는 일민주의를 신라의 화랑도와 연계하고자 했고 화랑 정신 계승을 표방한 학도호국단을 창설했다.<sup>43</sup> 1949년 학도호국단 대표가 “우리는 화랑도의 기백과 숭고한 3.1 정신을 계승 발휘하여 반민족적인 행동과 반국가적 상을 철저히 부셔 국토통일과 조국방위에 결사 헌신하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승만 정부에서 화랑도는 군인 정신을 상징했다.<sup>44</sup> 한국전쟁 중인 1950년 8월 27일 창설된 부대는 ‘화랑부대’, 육탄10용사는 ‘화랑정신’, 군인에게 주는 훈장은 ‘화랑무공훈장’, 최초의 군용담배는 ‘화랑’으로, 그리고 휴전 후 태릉으로 복귀한 육군사관학교는 ‘화랑대’라고 명명되었다.<sup>45</sup>

해방 후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화랑도를 체계화한 인물은 이선근(1905~1983)이었다.<sup>46</sup>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 이선근이 쓴 『화랑도 연구』(1949)는 ‘화랑’과 ‘화랑도’를 대한민국 건국 정신으로 내세운 이승만 정부의 국가관을

43 일민주의는 1948년 10월 출범한 정부 여당 대한국민당에서 처음 등장했다. 1949년 4월 이승만이 ‘신흥국가의 國是’로서 일민주의를 제창했다. 9월에는 일민주의 체계화 및 전 국민에 대한 사상적 강화와 조직적 보급을 위해 ‘일민주의보급회’, ‘일민주의연구회’가 설립 되었고, 출판매체인 ‘일민출판사’를 설립하고 주간지 『일민보』를 발행했다. 홍태영, 「과잉 된 민족’과 ‘찾을 수 없는 개인’: 일민주의와 한국 민족주의의 특수성」, 『한국정치연구』 24-3(2015), 94~96쪽.

44 「사만학도참집 중앙학도호국단결성」, 《경향신문》, 1949년 4월 23일.

45 1951년 8월, 대통령령 제522호에 따라 무공훈장의 명칭은 태극, 을지, 충무, 화랑으로 변경되었다. 최평승,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한국학연구』 33(2014), 243쪽

46 이선근(1905~1983)은 1939년 만주제국협화회 협의원, 1954년 문교부 장관 및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장, 1957년 성균관대학교 총장, 1978년 정신문화연구원 초대 원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잘 설명한다. 이 책의 서문에서는 “단기 4281년(1948) 기성청년 단체들은 이 대통령을 총재로 받아들여 대한청년단을 결성하고 문교부를 중심으로 중앙학도호국단 운동을 거행하였다.”며 이승만 정부의 청년운동과 학도운동의 시작을 선언하고, 화랑도의 세속오계에서 ‘임금’을 민족이나 국가로 바꾸어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화랑도를 국민운동 및 학도운동과 결부시켰다.<sup>47</sup> 이선근은 1950년대 국방부 정훈국장, 문교부장관 등을 정부 요직을 거치며 반공주의와 국가주의의 이념을 다지는 작업을 했을 뿐 아니라,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각종 요직을 지내며 관변 민족주의 사학을 전승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 2. 경주에 매료된 미술가들

1951년부터 53년까지가 내게 있어 신라 정신의 잉태기였지. 6.25전쟁 중 극심한 절망감 속에서 나는 “국난(國難)이 닥쳤을 때 우리 옛 어른들 가운데 그래도 제정신 차려 살던 이들은 난국을 무슨 슬기와 용기와 실천력으로 헤쳐 왔던가?” 하는 것을 절실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속으로 더듬거려 보던 끝에 신라 정신과 구체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야.<sup>48</sup>

서정주의 회고처럼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은 많은 예술가들이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 독자적인 예술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서정주의 ‘신라 정신’이 일본인 역사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것이며, 해방 후 독자적인 민족·국민 정신으로서 ‘화랑도’를 주창했던 국가주의적 파시즘과도 결

47 이선근, 『화랑도 연구』(서울: 해동문화사, 1949), 서문.

48 서정주, 김수남, 「김유신 장군을 배워라! 고난을 앞장서서 짊어진 모습을…」, 《월간조선》, 1995년 1월호.

부되어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sup>49</sup> 1950년대 예술가들이 재현한 신라 이미지의 이면에는 복잡한 상황이 존재한다. 실제로 식민지 시기 일본인 역사학자들이 만든 신라의 심상(心想)은 해방 후 관변학자들에게 그대로 수용되었고, 예술가들은 여기에 각자의 상상을 덧붙여 신라 이미지를 만들어 간 흔적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경주를 다룬 미술 작품은 1920년대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화가들이 여행객을 위해 제작된 사진, 기념엽서 등을 참고하여 신라의 고분, 불국사, 석굴암 등 유적지를 그린 풍경화에서 시작되어, 1930년대에는 황술조(1904~1939), 우신출(1911~1992) 등 경주와 부산의 지역 작가들에 의해 김알지의 탄생과 관계있는 계림을 소재로 한 풍경화로 이어졌다.<sup>50</sup> 그리고 해방 후 미술가들이 민족의식으로 고무되고 전쟁으로 피난을 오면서 경주는 고대 미술을 간직한 보고(寶庫)로 ‘재발견’되었다.

미술가 중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경주 유적을 탐구한 이는 한국화가 김영기(1911~2003)다.<sup>51</sup> 그는 신문에 「경주왕릉고적고」, 「경주고적답사기」 등의 칼럼을 연재하며 경주 유적을 연구하던 중에 전쟁을 맞이했고, 부산을 거쳐 경주에 자리를 잡은 뒤 연구와 사생에 몰두했다.<sup>52</sup> 그리고 3년간 경주 일대를 그린 그림과 연구 성과를 모아 개인전 ‘청강김영기수채화개인전—경주생활 3년의 기록 신라몽(新羅夢)’(1953)과 저서 『신라문화와 경주고적』(1953)을 내놓았다. 이 시기 대표작 〈회상의 신라〉(그림8)는 경주 월성을 배경으로 화랑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월성 앞으로는 고분군들이 보이며 하

49 이인영, 「전통의 시적 전유: 서정주의 ‘신라정신’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46(2009), 227쪽.

50 계림을 소재로 한 작품에 대해서는 김예린, 「일제강점기 신라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석사학위논문(2023), 56~59쪽 69~71쪽 참조.

51 김예진, 「1950년대 동양화단의 재편과 이응노」, 『고암논총』 11(2022), 108~109쪽.

52 「慶州王陵古蹟考(1)~(4)」, 《경향신문》 1949년 3월 30일~4월 3일; 김영기, 「慶州古蹟踏查記(상)~(하)」, 《조선일보》, 1950년 4월 1~4일.



그림8-김영기, 〈화상의 신라〉, 1952, 종이에 수묵담채, 250×11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그림9-이응노, 〈금강역사도〉, 1949,  
56.3×40.1cm, 종이에 수묵채색,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늘에는 비천들이 화랑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목과 그림이 암시하듯 이 경주는 화랑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공간이다. 김영기는 1950년대에 경주의 유적을 직접 답사하고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소재로 현대 한국화의 새로운 형식을 실험했다는 점에서 문제적 작가이다. 『신라문화와 경주고적』의 “신라는 세 나라 중에서 정치나 문화가 가장 뛰어난 나라였다.”라는 첫 문장에서 확인되듯 김영기에게 신라는 가장 훌륭한 ‘과거’였고, 개인전 ‘청강김영기현대한국화전—고도(古都)의 인상(印象)’(1955)에 선보인 경주 고분을 소

재로 한 반추상 회화에서 알 수 있듯이 경주는 ‘현대 한국’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다.

김영기와 교분이 깊었던 이옹노(1904~1989)도 경주를 방문했다. 1949년에 〈금강역사도〉(그림9)를 제작했고, 1954년 2월 4박 5일에 걸쳐 안암지, 계림, 빙장고, 천문대, 경주박물관, 불국사, 석굴암, 무열왕릉 등을 찾아가 여러 점의 스케치를 남겼다. 이듬해 1955년 5월 경주를 다시 방문한 이옹노는 각처에 산재한 고분, 박물관의 유물과 석굴암, 김유신묘 등을 돌아보며 “일생을 통하여 소위 ‘작가’로서 죽는 자 많건만 이 같은 작품을 창조한 인사가 몇이나 되느냐고 묻고 싶다. 다만 가슴이 설렐 뿐이요 붓대를 꺾어 버리고 차라리 사경에 파묻히고 싶은 충동과 미약한 나의 발자취에 거칠은 물결이 몰려오는 것만 같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sup>53</sup> 그리고 한 달 뒤 경주에서 그린 그림들을 모아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해방 직후 경주에는 경주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미술가들이 모여 경주예술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교수진으로는 손일봉(1907~1985), 배운성(1901~1978), 김만술(1911~1996), 윤경렬(1916~1999)이 있었고 이옹노와 김영기도 교수진으로 참여했다.<sup>54</sup> 경주는 많은 미술가에게 신비로운 예술의 보고(寶庫)였다. 서양화가 김환기(1913~1974), 조각가 김정숙(1916~1991)의 예에서 보듯 석굴암은 다양한 형식으로 재현되었다(그림10, 그림11). 당대 예술가들이 앞다투어 경주를 찾고 고대 유적을 찬미하고 이를 재현하면서 신라 유물·유적은 한국 문화예술의 정수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갔다. 디자이너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산업미술가협회 회원들

<sup>53</sup> 이옹노, 「신라예술의 기백, 경주기행」, 《동아일보》, 1955년 5월 17일.

<sup>54</sup> 경주예술학교는 대중계몽운동과 신라문화계승자의 배양을 주창하며 1946년 5월 5일 개교한 남한 최초의 예술전문학교로, 1952년 6월에서 1953년 사이에 폐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애신, 「경주예술학교의 설립과 전개과정」, 『근현대미술사학』 33(2017), 60~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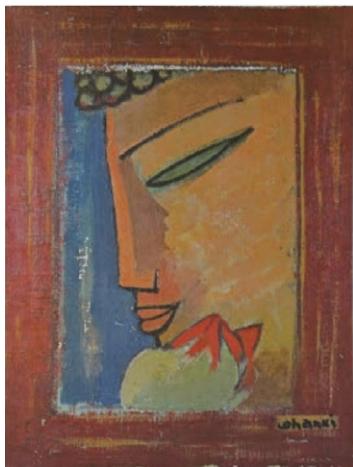


그림10-김환기, <석굴암인상>, 1950년대, 패널에 유화물감, 21.5×27.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그림11-김정숙, <석굴암 십일면관음보살상>, 1952, 점토원형, 소장처 미상

은 1947년 8월 경주를 여행한 뒤 제4회 회원전으로 조선산업미술가협회에서 ‘경주고적소개작품전’을 개최했다.<sup>55</sup>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 외화수익을 위해 관광사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수립되자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경주를 소재로 포스터를 제작했다(그림12). 전쟁 후 폐허를 재건 할 외화 유치를 위해 관광사업을 시행하며 경주가 관광지로 부상하고 경주에 소재한 유물·유적이 각종 언론 매체와 포스터에 자주 등장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신라의 고도 경주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각인 되었다.

“(석굴암과 불국사를) 지금은 우리나라의 삼척동자래도 모르는 사람이 없으나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 존재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

55 「경주고적 紹介展」, 《경향신문》, 1947년 8월 15일.



그림12-한홍택, <경주>, 1950년대,  
종이에 채색, 105×76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면 놀랄 일이다.”<sup>56</sup> 1957년 국립박물관장 김재원의 언급처럼 석굴암과 불국사는 단기간에 국가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 하지만 “제 것을 찾겠다는 깨달음이 일어나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학생들이 경주 불국사와 첨성대를 찾게 되었지만 정작 교사들과 지도층 인사들은 일제강점기에 받은 왜곡된 고대사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의 지적은 정부가 단기간에 성취한 문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 IV. 1970년대 화랑도와 김유신

### 1. 유신체제와 화랑도

1961년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전통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을 신설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공포한 데 이어, 1968년 7월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통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공보부를 발족했다. 그리고 문화공보부의 주관하에 문화재개발 5개년 계획(1969~1974)과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4~1978)을 실시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지정, 보존, 관리하는 일에 국가가 개입하고 관장할

<sup>56</sup> 「우리文化의 再認識—먼저 우리의 「얼」을 찾자(上)」, 《조선일보》, 1957년 1월 1일.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녔다. 1960~1970년대의 문화재 보호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민족적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역사현장의 교육도장화’의 성격을 띠었고, 문화재 보수사업은 호국선현과 국방유적의 정화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국가적 영웅들의 업적을 선전하기 위하여 1966년 현충사 종합정화사업을 비롯한 이순신 유적 정화사업이 실시되었고, 이어 유관순과 윤봉길 사당 건립, 강화도 유적 등 호국 관련 유적들이 보수·복원 되었다.<sup>57</sup>

1970년대에는 문화재 보수정화사업 중에서도 경주고도개발사업이 가장 비중 있게 추진되었다. “신라 고도를 웅대, 현란, 정교, 활달, 진취, 여유, 우아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재개발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1년 경주종합개발 사업이 착수되었고, 총 125억 원가량을 투입하여 문화재 관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추진되었다.<sup>58</sup> 경주종합개발 계획은 1970년 7월 경부 고속도가 완공되어 일일생활권이 되고 경제성장으로 관광여행의 소득이 증가하고, 베트남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며 외화 수입은 감소하는 상황 등이 고려된 것이었다.<sup>59</sup> 더불어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이념의 강화라는 정치적 효과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주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적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데다 경주에서 발굴된 금관은 신라문화의 정수이자 강대한 국력을 상징하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박정희의 관심 대상이었다.<sup>60</sup> 1971년 제20회 국전에 손동진(1921~2014)이 심사위원 자격으

57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답론」, 『비교문화연구』 4(1998), 124~128쪽.

58 위의 논문, 129쪽.

59 전덕재, 「1973년 천마총 발굴과 박정희 정권의 문화재 정책」, 『역사비평』 112(2015), 188쪽.

60 문화재가 국민교육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기조로 ① 국난극복의 역사적 유적 ② 민족 사상을 정립시킨 선현 유적 ③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을 위한 유적의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18개의 유적 가운데 7개(통일전, 오릉, 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불국사, 대릉원, 포석정지)가 경주에 있었다. 위의 논문, 195~196쪽



그림13-손동진, <신라금관>, 1971,  
캔버스에 유채, 121.5×121.5cm,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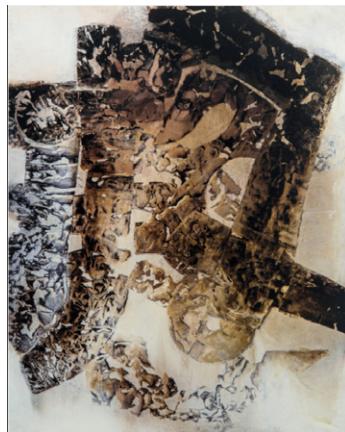


그림14-강정완, <회고>, 1975,  
캔버스에 유채, 162×130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로 출품한 <신라금관>(그림13)이나 1975년 제24회 국전의 대통령상 수상작인 강정완의 <회고>(그림14)와 같이 금관을 소재로 한 회화작품이 국전에서 두각을 보인 것은 신라 예술, 특히 금관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문화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1972년 유신체제에 돌입한 박정희 정부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한 뒤 1974년에 ‘문예중흥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한 것은 문화재 관리 예산이었는데 이는 역사적 영웅과 민족문화 황금기를 현창(顯彰)하기 위한 대규모 보수정화사업에 집중되었다.<sup>61</sup> 1973년 발표된 ‘문예중흥선언’은 “한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창조는 이를 증명한다.”라며 신라와 세종 연

61 오명석, 앞의 논문(1998), 130~134쪽.

간을 민족 중흥기라고 선언했다. 신라의 문화는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화랑도는 민족의 열이라고 선전하고, 화랑도의 ‘충’은 삼국통일의 정신적 토대라고 인식했다. 북한이 고구려를 황금시대로 평가한 데 반해 박정희 정부는 신라 문화권을 특히 중시하는 입장을 고수했다.<sup>62</sup>

이러한 이념과 사상이 정립되는 과정에는 박정희 정부 어용 지식인들의 역할이 컸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선근이었다.<sup>63</sup> 이선근은 1978년 집필한 『한민족의 국난극복사』에서 신라 지증왕이 ‘신(新)’과 ‘라(羅)’의 두 글자로 국호를 지은 것은 새로운 각오에 의한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여 삼국통일로 나아가려는 확고한 결의를 보인 것이고, 산업과 경제면에서 모든 주거(舟車)에 국가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경주에 동시(東市)를 설치한 것은 ‘유신정치’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면서, 박정희의 유신정치가 일본 근대기 메이지 유신을 참고한 것이라는 종래의 설을 부정하고 한국 유신정치의 역사적 근원을 신라에서 찾았다.<sup>64</sup>

‘10월 유신’에는 기본 목적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은 유신대업 흥망성폐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는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국력을 아무지게 길러나가면서 남북통일의 대업을 값싼 환상속에서 조금히 덤빌 것이 아니라 신라 조상들이 지증왕부터 문무왕까지 165년 걸려 했듯이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다.<sup>65</sup>

62 위의 논문, 128~130쪽.

63 박정희 정부에서 이선근의 역할에 대해서는 최광승, 앞의 논문(2018), 426쪽 참조.

64 이선근, 『한민족의 국난극복사』(서울: 휘문출판사, 1978), 56~60쪽.

65 이선근, 『민족의 이념과 전로』(서울: 휘문출판사, 1989), 374쪽; 최광승·조원빈, 「박정희의 민주주의관과 유신체제 정당화」, 『한국동북아논총』 26(2021), 71쪽에서 재인용.

이선근은 남북통일의 과업을 신라의 삼국통일에 비유했고 유신체제와 한국적 민주주의의 기원을 신라의 역사에서 찾았다. 국정 국사 교과서와 독본용 교과서인 『시련과 극복』(1978), 경주 화랑교육원의 수련교재인 『화랑 교본』(1973)도 신라의 역사를 박정희의 10월 유신과 동일시했고 화백회의를 한국적 민주주의의 선례로 학생들에게 주입했다.<sup>66</sup> 또 신라가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하기까지의 정신적 지주로 김유신 장군, 문무대왕, 원효대사를 거론했고, 국난극복의 위기를 창조적인 힘으로 이겨 낸 사례로 신라의 문무왕릉, 석굴암, 불국사와 고려의 팔만대장경을 꼽았다.<sup>67</sup>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남북관계도 과거의 군사 경쟁에서 체제 우월성 경쟁으로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에 총력안보 체제를 통해 국민 결속을 다지고자 했던 박정희 정부는 화랑도와 화랑정신을 풍류도와 불교호국사상이 결합된 ‘국민적 군사운동’으로 이해하고 화랑도 교육에 대규모로 자원과 인력을 투입했다.<sup>68</sup> 1973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청소년에게 화랑정신을 가르치는 학생수련원으로 화랑교육원이 개관했고, 화랑도의 기원과 구성, 화랑정신, 화랑도로 연결한 역사 해석 등의 이론교육, 국토순례, 분임토의 등을 실시했다. 박정희는 화랑도를 삼국통일의 원동력이자 국난극복의 애국 전통이라고 설명했고, 국난극복의 역사를 ‘화랑’이라는 일관된 키워드로 해석함으로써 화랑국선(花郎國仙)이 이순신과 의병운동과 동학혁명으로 이어져 국난을 극복하는 애국 전통이 되었다고 보았다.<sup>69</sup> 바로 이러한 역사 인식은 삼국통일의 주역인 태종

66 위의 논문, 62쪽.

67 이선근, 앞의 책(1978), 168쪽; 이선근, 「우리 민족의 이념과 진로—조국근대화와 우리의 좌표」, 《공군》, 1973년 12월호.

68 김원, 「발굴의 시대: 경주 발굴, 개발 그리고 문화공동체」, 『사학연구』 116(2014), 293쪽.

69 최광승, 「창조된 문화유적」 경주 통일전: 유신을 위한 국민교육도장, 『역사문제연구』 22-2(2018), 426쪽.

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의 국가 사당인 통일전을 건립하고 ‘삼국통일 위인유적 기록화’를 제작하는 배경이 되었다.

## 2. 경주 통일전과 ‘호국영웅 김유신’

박정희 정부는 위인 조상 제작 사업과 민족기록화 제작 사업을 추진하여 정부의 역사 인식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자 했다. 먼저 1966년 8월 15일 ‘애국조상건립위원회’를 발족하여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덕, 김유신 등 혁혁한 무공이 있는 위인들의 조상(彫像)을 제작하는 계획을 세웠고 1969년 9월 김경승이 제작한 <김유신 장군 동상>(그림15)이 완성되었다. 서울 태평로에 열린 제막식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삼부 요인 및 각계 인사가 참여했고 대통령의 현화와 군악대의 주악이 이어졌다.<sup>70</sup> 1967년에는 민족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민족기록화전’에 민족기록화 55점을 전시했고, 1973년에 경제편 30점, 1975년 전승편 및 경제편 40점, 1976년 구국위업편 20점과 문화편 14점 등 총 159점의 민족기록화를 제작했다. 이 가운데 신라의 역사를 주제로 한 그림으로는 오승우의 <신라의 당군 격퇴와 삼국통일>(그림16), 정창섭의 <화랑도의 수련>(그림17), 김태의 <황룡사의 조영>, 임충선의 <혜초의 천국구법 활동>, 이종상의 <태종 무열왕>(1976) 등이 있었다.

유신체제의 이데올로기가 공고해지고 이를 과시하는 민족기록화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김유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화 제작도 별도로 추진

---

<sup>70</sup> 「김유신 장군 동상 제막 박대통령 참석」, 《매일경제》, 1969년 9월 23일, 앞서 1968년에 세종대왕 동상, 이충무공 동상, 사명대사 동상이 제작되었고, 1969년 사업에서는 사직공원에 조성된 김정숙의 <율곡선생 동상>, 효창공원에 조성된 송영수의 <원효대사 동상>, 북악공원에 조성된 최기원의 <을지문덕 장군 동상>이 제작되었다. <김유신 동상>은 1972년 서울시의 지하철 착공에 따라 남산 어린이공원으로 이전되었다.



그림15-김경승,  
〈김유신 장군 동상〉, 1969



그림16-오승우, 〈신라의 당군 격퇴와  
삼국통일(매소성 전투)〉, 1975,  
캔버스에 유채, 197×290.9cm,  
전쟁기념관 소장



그림17-정창섭, 〈화랑도의 수련: 삼국통일  
위업의 완수와 화랑도〉, 1977,  
캔버스에 유채, 197×290.9cm,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18-김만술, 〈김유신 장군 동상〉,  
1977

되었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남북한은 김유신에 대한 평가에서 다른 입장 을 표방하기 시작하여, 북한 역사학계는 김유신을 ‘봉건통치배’로 배척하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당나라와 함께 타도되어야 할 ‘침략 세력’으로 규정 했다.<sup>71</sup> 이에 반해 남한에서는 민족기록화 제작 사업이나 호국 기념시설 조성 사업과 관계를 맺으며 역사적 영웅으로 이상화되었다.

1977년 경주 황성공원에 설치된 〈김유신 장군 동상〉(그림18)은 ‘북벌’을 이끄는 무장으로서 국가 이념을 과시했다. 이 동상은 경주에서 활동하던 조각가 김만술이 제작한 것으로, 건립문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각상이 북쪽을 바라보도록 세웠으며 호국정신을 일깨우고 조국 통일의 과업 을 이루고자 ‘화랑의 정기 넘치는 서라벌 옛 터전’에 조성한 것이라는 내용 이 적혔다.<sup>72</sup> 조각의 좌대에는 박정희가 직접 ‘金庾信將軍像’이라고 제호를 썼다. 대통령의 관심하에 경주에 조성된 거대한 김유신 조각상은 경주인들 에게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역사적 과업을 달성한 김유신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북쪽에 무찔러야 할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 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통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 되었고, 정부는 무열왕, 문무왕, 김유신 장군을 “자주통일을 위한 오늘날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적 지주”로 삼아 남북통일의

71 임선애, 앞의 논문(2007), 141쪽.

72 건립문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銘刻 捸毫하신 이 우람한 기마상 은 1975년 4월 17일 동상을 다시 만들어 방향도 바꾸어 세우라는 분부를 받들어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이신 김유신 장군의 위훈을 오늘에 되새기며, 온 겨레의 호국정신을 일깨우고 조국의 평화통일 과업을 이룩해 나가는 벽찬 앞길에 찬연한 횃불을 밝혀 길이 후세에 전하고자 여기 화랑의 정기 넘치는 서라벌 옛 터전에 자리 잡아 멀리 북녘을 향해 우뚝 세우다. 1976년 7월 15일에 기공하여 1977년 9월 1일에 준공하다. 세운이 경상북도 만든이 경주 김만술.”

위업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sup>73</sup> 1977년 박정희 정부는 무열왕, 문무왕, 김유신 장군의 삼국통일 위업을 기리는 삼국통일 위인유적으로 통일전을 준공했다. 통일전은 1974년 6월 삼국통일 위인유적 조성 방안을 마련하라는 박정희의 지시 후 1976년 4월 건립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7월 완공되었다.<sup>74</sup> 흥국문(興國門)을 들어서면 삼국통일기념비와 함께 삼국통일 주역인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의 사적비가 있고, 정원을 지나서 조국 통일의 기원한다는 의미의 서원문(誓願門)에 들어서면 본전을 마주하게 되는 구조이며, 대형 기록화를 전시한 회랑(回廊)이 본전을 에워싸는 구조로 조성되었다.

통일전의 건축물들은 경주에 남아 있는 신라 유적들을 모방한 것으로, 삼국통일기념비와 사적비의 귀부는 〈신라태종무열왕비〉와 동일하게 했고, 흥국문의 계단과 석축은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를 모방했으며 본전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건축물 부재, 석탑, 부도를 참고했다.<sup>75</sup> 통일전은 화랑교육원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기능했고 일반 국민에게도 참배 장소로 개방되었다.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물리친 날을 기념하여 1979년 10월 7일 ‘통일서원제’라는 국가적 행사를 거행하기도 했다.

본전은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의 영정을 배향한 곳으로, 태종무열왕과 문무왕 영정은 김기창이 제작했으나, 김유신 영정은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충북 진천 길상사의 영정을 제작한 장우성이 담당했다. 장우성은 통일전 영정 형식에 맞추어 문관 복식의 좌상으로 하되 진천의 김유신 영정을 참고하여 그림을 완성했

73 전재호, 「박정희 정권의 ‘호국 영웅 만들기’와 전통문화유산정책」, 『역사비평』 99(2012), 127쪽.

74 통일전의 건립 배경과 시설 개괄에 관해서는 최광승, 앞의 논문(2018)을 참고했다.

75 “삼국통일” 위업과 얼이 숨쉬는 경주 남산 기슭의 ‘統一殿’, 《동아일보》, 1977년 8월 20일; 통일전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는 본전 건축에 만족을 표한 뒤 향후 고건축을 복원할 때 통일전 본전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후 미색으로 도색한 시멘트 건축이 양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옛건물 복원은 ‘統一殿’을 기준으로」, 《조선일보》, 1977년 9월 8일.



그림19-장우성, 〈김유신 영정〉,  
통일전 소장

다(그림19).<sup>76</sup> 회랑에는 서양화가 오승우에게 의뢰하여 삼국통일의 과정을 기록한 회화 8점이 전시되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래 회랑 남편에 〈김유신 장군 단석산 수련〉, 〈김유신 장군과 천관녀〉, 〈김유신 장군과 재매정〉, 〈무열왕의 남천정 출진〉, 〈화랑 관창의 활약상〉을 진열하고, 북편에 〈황산벌 혈전〉, 〈신라 백제 병합〉, 〈사천왕사 호국불사〉, 〈매소성 당군 격멸〉, 〈삼국통일의 영광〉을 전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총화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

로 〈신라 백제 병합〉과 〈삼국통일 영광〉 두 점이 제외되었고 한다.<sup>77</sup>

통일전 기록화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가 남아 있어 경위를 알 수 있다.<sup>78</sup> 1976년 4월 30일 기록화 제작 자문위원회가 개최되고 영정 3점과 기록화 10점 제작이 결정되었다. 영정은 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의 문관복 좌상을 100호 크기의 동양화로 제작하고 기록화는 200호 크기의 서양화 10점을 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1976년 9월 1일 ‘삼국통일 위인유적 기록화 작성에 필요한 자료 고증’ 회의를 열어 〈단석산수련〉, 〈무열왕의 외교

76 문화재관리국 기념물과, 「삼국통일위인유적기록화 작성에 필요한 자료고증 실시」(197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04384),

77 「화랑의 옛터 전 재현 통일전 경주남산기슭에…새국민 교육도장으로」, 《경향신문》, 1977년 9월 7일.

78 문화재관리국 기념물과, 「기록화제작자문위원회회의록」(197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04384); 문화재관리국, 「삼국통일위인유적기록화 작성에 필요한 자료고증 실시」(197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04384); 문화재관리국, 「기록화 제작 작가 추천」(197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04384).

활약〉, 〈김유신과 천관녀〉, 〈재배정〉, 〈무열왕의 남천정 출진〉, 〈황산벌 혈전〉, 〈문무왕의 출진〉, 〈항당 혈전〉, 〈사천왕사 창건불사〉, 〈삼국통일의 영광〉 10점을 서양화가 오승우(1930~2023)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오승우가 1977년에 완성한 작품은 〈김유신 장군 단석산 수련〉, 〈김유신 장군과 천관녀〉, 〈김유신 장군 출전〉, 〈무열왕 남천정 출전〉, 〈황산벌 혈전〉, 〈매소성 당군 격멸〉, 〈사천왕사 호국불사〉, 〈화랑 관창 용전〉의 8점으로, 〈무열왕의 외교활약〉, 〈문무왕의 출진〉, 〈삼국통일의 영광〉의 3점이 누락되고 계획에 없었던 〈화랑 관창 용전〉가 추가된 것이었다(표1). 10대의 어린 나이에 백제와 싸우다 전사한 어린 화랑의 용전(勇戰)을 추가한 것은 애국을 위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작품 제작을 담당한 오승우는 김종필이 주축이 된 일요화가회에서 지도 교수 중 한 명으로 활동했고 1967년과 1974년 민족기록화 제작에 참여하여 〈용문산의 혈전〉, 〈월남기록화-기습〉 등의 전쟁기록화를 제작한 이력이 있었다. 그는 1974년부터 1975년까지 1년간 프랑스에 건너가 풍경화를 그린 뒤 귀국전을 열었는데, 전시를 소개하는 신문들은 그가 일요화가회 지도교수라는 사실과 민족기록화 전시와 월남전기록화 전시에 출품한 이력을 주로 소개했다.<sup>79</sup>

1930년생으로 아직 화단에서 영향력이 적었던 그가 통일전 기록화를 전적으로 도맡을 수 있었던 것은 기록화 제작 자문위원회가 작품 제작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자문회의에는 원래 4명의 화가가 추천되었으나 오승우 화백이 기록화 제작 실적이 많고 그림이 좋으며 가격 조건도 유리하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2011년 진행된 구술채록에서 오승우는 제작 과정에서 그림의 도상이나 복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문을 한 인물로 석주

---

79 「吳承雨 風景畫展—18일까지 신문화관」, 《매일경제》, 1976년 3월 12일.

표1-1977년 제작 삼국통일 위인유적 기록화

연번	1976년 자문회의에서 의결한 작품 주제	1976년 자문회의에서 의결한 작품명	1977년 완성작 (작품 크기는 모두 230×150cm)
1	김유신이 화랑이 되어 삼국통일의 웅지를 품고 종악에서 수련하는 모습	〈단석산수련도〉	오승우, 〈김유신 장군 단석산 수련〉 
2	김춘추의 외교 활동(대당 관계)	〈무열왕의 외교활약〉	—
3	김유신의 천관녀와의 관계(랄목 벤 장면)	〈김유신과 천관녀〉	오승우, 〈김유신 장군과 천관녀〉 
4	김유신의 백제 정벌 중 자기 집에 못 들리고 다시 출진하면서 자기 집 앞길에서 재매정의 물을 떠 오게 하는 장면	〈재매정〉	오승우, 〈김유신 장군 출전〉 
5	무열왕의 백제 정벌의 남천정 출진 장면	〈무열왕의 남천정 출진〉	오승우, 〈무열왕 남천정 출진〉 

연번	1976년 자문회의에서 의결한 작품 주제	1976년 자문회의에서 의결한 작품명	1977년 완성작 (작품 크기는 모두 230×150cm)
6	신라, 백제의 황산벌 혈전 장면	〈황산벌 혈전도〉	오승우, 〈황산벌 혈전〉 
7	문무왕의 백제도성 공략 출진 장면	〈문무왕의 출진〉	—
8	신라군의 당군 축출을 위한 매소성 공략 장면(신라 문훈) 등 구군이 당군 20만을 작파)	〈항당 혈전〉	오승우, 〈매소성 당군 격멸〉 
9	신라가 당군 격파를 위해 창건하는 호국기원의 도장인 사천왕사 창건 장면	〈사천왕사 창건불사〉	오승우, 〈사천왕사 호국불사〉 
10	신라 삼국통일의 영광을 상징하는 장면	〈삼국통일의 영광〉	—
추가	—	—	오승우, 〈화랑 관창 용전〉 



그림20-오승우,〈풍경(해인사)〉, 1960,  
캔버스에 유화물감, 158.2×112.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선과 이선근을 언급하여 이선근이 구체적인 사업들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sup>80</sup>

오승우의 그림들은 소년 김유신이 삼국통일의 뜻을 세우고 전쟁에 출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화랑의 용전과 호국불사에 힘입어 마침내 당군을 격멸하는 과정을 묘사했다. 하지만 화가가 본래 구사하는 대담한 필치와 색채를 배제한 채 고증위원들의 지시대로 그런 그림들에서 화가의 개성은 모두 탈각되어 버렸다(그림20).

10점의 연작을 ‘삼국통일 위인유적 기록화’라고 명명한 데서 알 수 있듯, 자문위원들이 지명한 ‘사실(史實)’을 큰 화면에 재현하여 ‘기록’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였으며, 참배객이 그림을 보면서 삼국통일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그림의 역할이었다. 따라서 작품의 미학적·예술적 가치는 중요하지 않았다. 〈김유신 장군 단석산 수련〉, 〈김유신 장군과 천관녀〉 2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출전, 전투, 호국불사 등 전쟁과 관련된 그림이었다. 〈김유신 장군 단석산 수련〉, 〈김유신 장군과 천관녀〉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방문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채택되었을 것이다.<sup>81</sup>

80 구술채록 당시 오승우는 ‘이상군’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선근’의 이름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예술자료원(편), 『2011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215—오승우』(서울: 국립예술자료원, 2011), 105쪽과 183쪽.

81 천관녀 설화는 1930년대 후반 경주 관광 홍보용으로 제작된 〈신라의 전설〉 그림엽서에

1977년에 완성된 기록화에 대한 정부 당국의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듯, 문화재관리국은 1978년 7월 삼국통일 과정 기록화 제작회의를 개최하여 15개의 새로운 주제를 논의했다. 김태(1931~2021)의 〈삼국통일 영광도〉, 오승우의 〈기별포 대첩도〉와 〈남산성 축성도〉, 정창섭의 〈원광법사 세속오계 교화도〉와 〈문무왕 호국 해룡도〉의 5점이 1979년에 완성되어 추가로 설치되었(표2). 1978년 6월에는 기록화 제작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1차 ‘통일전 기록화 제작 고증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회의에서는 기록화를 한꺼번에 양산하지 말고 충분한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제작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동족상잔의 전쟁 장면 대신 호국불사나 문무왕 호국 해룡도 등의 다른 장면으로 대체하라는 의견이 나왔다.<sup>82</sup> 기록화를 단기간에 기계적으로 양산하여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와 삼국통일에 대한 역사학계의 논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런데 1979년 9월 5점이 완성된 이후 나머지 작품들은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다. 결국 통일전의 ‘삼국통일 위인유적 기록화’ 사업은 1977년 1차 제작 8점과 1979년 2차 제작 5점으로 일단락되었고, 10년 뒤인 1987년에야 4점이 다시 추가되어 현재의 17점에 이르렀다(표3).<sup>83</sup>

---

박혁거세 탄생설화, 김알지 탄생 설화, 안암지 전설, 포석정 이야기와 함께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대중적이었다. 김예린, 앞의 논문(2023), 33쪽.

- 82 문화재관리국, 「통일전기록화작가추천」(1978,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21062); 문화재관리국, 「기록화제작 고증위원 위촉 및 1차회의 개최」(1978,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21062), 이때 고증위원은 당시 문화재위원 이선근·이은상·황수영을 비롯하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건축사학자 김동욱, 국립중앙박물관장 최순우였다.
- 83 이후에 생산된 통일전 관련 문서들에는 기록화제작이 1973년 11월 23일 착수하여 1979년 9월 30일 완료한 사업으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 현재 17점은 〈김유신 장군 단석산 수련〉, 〈김유신 장군과 천관녀〉, 〈김유신 장군 출전〉, 〈무열왕 남천정 출전〉, 〈남산성 축성〉, 〈황룡사 9층탑 조영〉, 〈강수 외교문서 작성〉, 〈원광법사 세속오계 교화〉, 〈삼국통일의 영광〉, 〈문무왕 호국 해룡〉, 〈원효군사 자문〉, 〈평양성 함락〉, 〈기별포 대첩〉, 〈화랑 관창 용전〉, 〈황산벌 혈전〉, 〈사천왕사 호국불사〉, 〈매초성 당군 격멸〉의 순서로 되어 있다.

표2-1979년 제작 삼국통일 위인유적 기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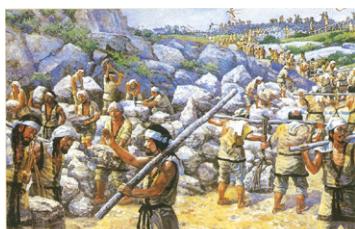
연번	작품명	작가	크기	내용
1	〈삼국통일 영광〉	김태	1000호 615×189cm	
2	〈기벌포 대첩〉	오승우	200호 206×127cm	
3	〈남산성 축성〉	오승우	200호 206×127cm	
4	〈원광법사 세속오계 교화〉	정창섭	300호 314×173cm	
5	〈문무왕 호국 해룡〉	정창섭	300호 314×173cm	

표3-1987년 제작 삼국통일 위인유적 기록화

연번	작품명	작가	크기	내용
1	〈황룡사 9층 탑 조영〉	오원배	230×150cm	
2	〈평양성 함락〉	오원배	230×150cm	
3	〈원효 군사 자문〉	박비오	230×150cm	
4	〈강수 외교문서 작성〉	박비오	230×150cm	

통일전이 완공된 후에도 박정희는 통일전과 화랑교육원을 시찰하며 직원을 위한 아파트 건립을 지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sup>84</sup> 하지만 그로부터 약 열흘 뒤에 10.26 사건이 일어나면서 ‘유신정부의 국민교육도장’이자 ‘통일을 위한 국민의 원당’이라는 통일전의 역할도 빠르게 종식되었다.<sup>85</sup> 민족정신 함양을 위해 제작된 기록화의 수명도 자연스럽게 소멸되었고, 이로써 일제강점기부터 유신정부까지 국가 정세에 보조를 맞추며 전개된 김유신 주제 역사화 제작은 일단락되었다.

## V. 맷음말

국권상실의 위기 속에서 역사 연구가 촉발된 계몽운동기에 김유신은 역사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가 민족동화정책을 추진하고 태평양전쟁 참전을 촉구하면서 김유신의 위업이 동원되었고, 해방 후 냉전기에는 북한과 대비되는 역사적 정통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신라와 화랑도가 재조명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정치적 혼란을 타개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하여 신라의 화랑 정신과 삼국통일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통일전의 ‘삼국통일 위인유적 기록화’ 제작 사업을 통해 김유신의 공식적인 이미지를 생산했다. 일제강점기 이도영의 〈석굴수서〉와 유신시대 오승우의 〈김유신 장군 단석산 수련〉, 〈김유신 장군과 천관녀〉, 〈재매정〉과 같은 그림들은 각 시대가 ‘고안’한 영웅의 표상이다.

최근 역사 연구에서는 1970년대 경제부흥 운동으로만 인식되었던 새마을

84 「朴大統領, 직원아파트 建立지시—統一殿·花郎교육원시찰」, 《동아일보》, 1979년 10월 13일.

85 이후 통일전은 점차 참배객이 줄어들면서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된다. 최광승, 앞의 논문 (2018), 445쪽.

운동 이면에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통치 전략과 냉전 이데올로기 하에 서의 군사전략이 정치하게 스며들어 있었으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새 마을운동 목표 역시 단순히 경제 운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농촌으로부터의 반란이 일어나 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드러내었다.<sup>86</sup> 마찬가지로 정치적 긴장이 극도로 팽창되던 1970년대 적극적으로 추진된 문화정책 또한 순수한 문화예술 진흥정책으로만 보기 어렵다. 박정희 정부에서 민족기록화 사업을 추진한 아래 삼국통일의 위업, 화랑도 정신, 김유신 장군의 위업을 부각한 배경에는, 한국전쟁 직후 위인선양 사업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일제의 문화 통치 전략과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신라의 역사와 화랑도 정신과 김유신의 무공을 현창하는 다양한 사업의 이면에는 정부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상무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견인하고, 관광사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전략이 숨어 있었다. 1973년에 개관한 화랑의 집, 1976년 재건된 진천 길상사, 1977년 경주에 개관한 통일전에는 신격화된 국가 영웅 김유신을 둘러싼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얹혀 있다. 통일전에 전시된 17점의 기록화는 김유신의 사적(事績)을 알리는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나, 정치 환경의 급격한 변화, 역사적 고증의 부정확성, 창작 주체와 표현 방식의 괴리 등은 국민 정서를 감화시키고 민족정신을 강화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로 작동했다.

---

86 역사학자 허은 교수는 최근 논저 『냉전과 새마을』(파주: 창비, 2022)에서 새마을운동이 일제강점기의 조선인 만주 이주 정책, 이승만 정부의 제주도민 강제 이주 정책, 베트남전쟁 참전 한국군의 베트남 주민 관리 정책을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정치적 효과를 학습한 뒤 이를 적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문화재관리국 기념물과, 「기록화제작자문위원회의록」(197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04384).

문화재관리국 기념물과, 「삼국통일위인유적기록화 작성에 필요한 자료고증 실시」(197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04384).

문화재관리국, 「기록화 제작 작가 추천」(1976,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04384).

문화재관리국, 「기록화제작 고증위원 위촉 및 1차회의 개최」(1978,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21062).

문화재관리국, 「통일전기록화작가추천」(1978,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21062).

### 2. 논저

강희정, 「신라 ‘경주신화’ 왜곡상」, 김창겸·김덕원·박남수·채미하·장일규·강희정, 『일제 강점기 언론의 신라상 왜곡』,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김신재, 「1920년대 경주의 고적 조사·정비와 도시변화」, 『신라문화』 38, 2011, 342~343쪽.

김예린, 「일제강점기 신라 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김예진, 「이도영의 정물화 수용과 그 성격: 사생과 내셔널리즘을 통한 새로운 회화 모색」, 『미술사학연구』 296, 2017, 175~203쪽.

김예진,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의 한국 고미술품 컬렉션」, 박정혜·신선영·제송 희·김예진, 『한국미술, 세계와 만나다: 근대기 외국인 컬렉터 연구』, 서울: 민속원, 2020.

김예진, 「1950년대 동양화단의 재편과 이웅노」, 『고암논총』 11, 2022, 102~131쪽.

김원, 「발굴의 시대: 경주 발굴, 개발 그리고 문화공동체」, 『사학연구』 116, 2014, 479~542쪽.

김창겸·김덕원·박남수·채미하·장일규·강희정, 『일제강점기 언론의 신라상 왜곡』,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김현숙, 「근대 시각문화 속의 석굴암」, 황종연(편), 『신라의 발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 부, 2008.

박계리, 「한국 근대 역사인물화」, 『미술사학보』 26, 2006, 33~60쪽.

박남수, 「신라 역사지리 왜곡상」, 김창겸·김덕원·박남수·채미하·장일규·강희정, 『일제 강점기 언론의 신라상 왜곡』,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 박찬승, 「근대 일본·중국의 '무사도'론과 신채호의 '화랑'론」, 『충청문화연구』 5, 2010, 71~102쪽.
- 신채호(저), 박기봉(역), 『조선상고사』, 서울: 비봉출판사, 2006.
-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4, 1998, 121~152쪽.
- 윤선태,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 역사학의 성립」, 『신라문화』 29, 2007, 125~142쪽.
- 은정태, 「박정희시대 성역화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15, 2005, 241~277쪽.
- 이선근, 『화랑도 연구』, 서울: 해동문화사, 1949.
- 이선근,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서울: 휘문출판사, 1978.
- 이선근, 『민족의 이념과 진로』, 서울: 휘문출판사, 1989.
- 이순진, 「아시아재단의 한국에서의 문화사업: 1954년~1959년 예산서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0, 2016, 9~56쪽.
- 이애신, 「경주예술학교의 설립과 전개과정」, 『근현대미술사학』 33, 2017, 57~82쪽.
- 이인영, 「전통의 시적 전유: 서정주의 '신라정신'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46, 2009, 273~304쪽.
-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서울: 혜안, 2007.
- 임선애, 「한국문화와 김유신의 재현양상」, 『신라사학보』 11, 2007, 139~172쪽.
- 장일규, 「신라 고적 왜곡상」, 김창겸·김덕원·박남수·채미하·장일규·강희정, 『일제강점기 언론의 신라상 왜곡』,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 전덕재, 「1973년 천마총 발굴과 박정희 정권의 문화재 정책」, 『역사비평』 112, 2015, 186~205쪽.
- 전재호, 「박정희 정권의 '호국 영웅 만들기'와 전통문화유산정책」, 『역사비평』 99, 2012, 113~140쪽.
- 정연경, 「일본 근대 역사화: 미술과 권력의 구조적 문제」, 『기초조형학연구』 15, 2014, 593~603쪽.
- 정종현, 「국민국가와 '화랑도': 대국계몽기~대한민국 건국기의 '화랑' 담론과 활용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4, 2006, 179~206쪽.
- 정종현, 「1950년대 아시아재단의 민족문화유산 지원 연구」, 『한국학연구』 52, 2019, 131~156쪽.
- 조범환, 「일제강점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신라 화랑 연구」, 『신라사학보』 17, 2009, 55~88쪽.
- 최광승,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한국학연구』 33, 2014, 237~275쪽.

최광승, 「창조된 문화유적」 경주 통일전: 유신을 위한 국민교육도장, 『역사문제연구』 22-2, 2018, 419~456쪽.

최광승·조원빈, 「박정희의 민주주의관과 유신체제 정당화」, 『한국동북아논총』 26, 2021, 45~67쪽.

허은, 『냉전과 새마을: 동아시아 냉전과 연쇄와 분단국가체제』, 파주: 창비, 2022.

홍태영, 「과잉된 민족'과 '찾을 수 없는 개인': 일민주의와 한국 민족주의의 특수성」, 『한국정치연구』 24-3, 2015, 87~112쪽.

황종연(편), 『신라의 발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8.

### 3. 기타

「삼국통일」 위업과 열이 숨쉬는 경주 남산 기슭의 '統一殿', 《동아일보》, 1977년 8월 20일.

「경주·마산간 관광기동차운행」, 《경향신문》, 1955년 5월 24일.

「경주고분에 대해—이공보처장 담화」, 《경향신문》, 1949년 7월 18일.

「경주고적 紹介展」, 《경향신문》, 1947년 8월 15일.

「경주고적탐방회」, 《경향신문》, 1947년 4월 16일

「경주국립공원삼개년계획」, 《조선일보》, 1953년 9월 14일.

「경주국립공원삼개년계획」, 《조선일보》, 1953년 9월 14일.

「경주에 국립공원」, 《조선일보》, 1949년 12월 6일.

「경주에 국립공원——民主義 보급에 전력」, 《동아일보》, 1950년 1월 5일.

「慶州王陵古蹟考(1)~(4)」, 《경향신문》 1949년 3월 30일~4월 3일.

「관광사업추진—불국사등 호텔 수리」, 《경향신문》, 1952년 4월 14일.

「김유신 장군 동상 제막 박대통령 참석」, 《매일경제》, 1969년 9월 23일.

「묵은 朝鮮의 새香氣 畵壇篇」, 《조선일보》, 1938년 1월 8~9일.

「朴大統領, 직원아파트 建立지시—統一殿·花郎교육원시찰」, 《동아일보》, 1979년 10월 13일.

「사만학도참집 중앙학도호국단결성」, 《경향신문》, 1949년 4월 23일.

「서정주시인의 신라정신탐구 김유신의 재발견」, 《월간조선》, 1995년 1월호.

「新羅祭 來五日舉行」, 《동아일보》, 1947년 9월 23일.

「씨름·줄다리기·그네·弓術의 由來」, 《동아일보》, 1939년 1월 3일.

「연극보고 감격한 월남군인의 혈서」, 《동아일보》, 1950년 5월 29일.

「옛건물 복원은 '統一殿'을 기준으로」, 《조선일보》, 1977년 9월 8일.

「吳承雨 風景畫展—18일까지 신문화관」, 《매일경제》, 1976년 3월 12일.

「우리문화의 再認識—먼저 우리의 「열」을 찾자(上)」, 《조선일보》, 1957년 1월 1일.

「하와이교포단離京 불국사부산등탐방」, 《경향신문》, 1955년 10월 28일.

「화랑의 옛터전 재현 통일전 경주남산기슭에…새국민 교육도장으로」, 《경향신문》, 1977년 9월 7일.

김영기, 「慶州古蹟踏查記(상)~(하)」, 《조선일보》, 1950년 4월 1~4일.

오영진, 「元述郎을 보고」, 《경향신문》, 1950년 5월 3일.

이광수, 「元述の出征」, 《신세대》, 1944년 6월호.

이병도, 「〈出陣學徒에게 보내는 말〉 어머니의 굳센 격려, 전투 용기를 백 배나 더하게 한다」, 《매일신보》, 1943년 11월 26일.

이선근, 「우리 민족의 이념과 진로—조국근대화와 우리의 좌표」, 《공군》, 1973년 12월호.

이응노, 「신라예술의 기백, 경주기행」, 《동아일보》, 1955년 5월 17일.

千玉煥, 「경주기행초」 상~하, 《경향신문》, 1947년 11월 6~20일.

최남선, 「보람있게 죽자: ‘臨戰無退’ 空論無用」, 《매일신보》, 1943년 11월 4일.

황의돈, 「과거사연구: 신라의 찬연한 문명과 신라민중의 영화, 그 서울 경주는 엇더하였나(1)」, 《삼천리》, 1929년 6월 12일, 제1호 논설.

「‘김유신함’은 없고, ‘신채호함’ ‘홍범도함’은 있다!」, 《월간조선》, 2024년 5월 23일,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406100037>(검색일: 2024.7.16).

「부인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s://daegu.grandculture.net/daegu/toc/GC40020887?requestBy=%ec%a0%84%ea%b5%ad>(검색일: 2024.11.1).

장상훈, 「국립박물관의 광복동 시대」, 《박물관신문》, 2019년 8월 1일, <https://webzine.museum.go.kr/sub.html?amIdx=13489>(검색일: 2024.11.1).

## 국문초록

1922년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이도영(李道榮, 1884~1933)이 출품한 <석굴수서(石窟受書)>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제로 한 최초의 역사화이다. 1920년대 이후 고분 발굴을 통해 금제 유물이 잇달아 출토되면서 ‘찬란한 고대 왕조’ 신라가 재발견되고, 일제의 역사 연구에서 신라는 조선사의 정통을 완성한 왕조로 자리 잡았다.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고대사 인식은 해방 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남북한의 대립이 격화된 상황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상무정신과 애국심의 모범으로 신라의 화랑정신을 주목했다. 한국전쟁기 경주는 외화 유치를 위한 관광지로 조성되었고, 많은 미술가가 민족문화의 원형이 보존된 경주에서 예술적 영감을 구했다.

1967년 시작된 민족기록화 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역사적 위업과 구국 영웅이 선별되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통일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한국사의 위대한 역사적 위업으로 재조명했고 김유신은 삼국통일을 이끈 주역으로서 민족기록화의 주인공으로 재현되었다. 박정희의 지시로 1977년 완공된 통일전은 삼국통일의 주역을 선양(宣揚)하는 현장이 되었고, 삼국통일을 주제로 한 기록화는 국민교육용 교재로 기능했다.

투고일 2024. 9. 21.

심사일 2024. 10. 28.

게재 확정일 2024. 11. 19.

주제어(keywords) 김유신 (Kim Yusin), 민족기록화 (Korean heritage painting), 역사화 (historical painting), 통일전 (Tongiljeon), 오승우 (Oh Seungwoo), 이도영 (Yi Doyoung)

## Abstract

### The Emergence of Historical Paintings and the Visualization of Silla Kim, Yejin

Yi Do-young's *Seokgulsuseo*, which was exhibited at the First Joseon Art Exhibition in 1922, was the first historical painting to depict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of Silla. In the 1920s, spurred on by the discovery of golden artifacts in tomb excavations, renewed interest in Silla as a “glorious ancient dynasty” emerged. At the same time, Japanese historical scholarship portrayed Silla as the dynasty that completed the historical orthodoxy of Joseon.

The perception of Silla’s ancient history, which was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sisted with minimal change after liberation. Amid escalating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yngman Rhee’s government invoked Silla’s “Hwarang spirit” to promote ideals of patriotism and martialism. During the Korean War, Gyeongju was promoted as a tourist destination to earn foreign exchange, while many artists found inspiration in the preserved archetypes of national culture.

Initiated in 1967, the National Documentary Painting Project, aimed to depict representative historical achievements and national heroes.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emerged as a central issue following the July 4, 1972, North-South Joint Statement. Consequently,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portrayed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of Silla as a seminal event in Korean history, with Kim Yoosin as the hero who led the unification. With the completion of Tongiljeon in 1977, under President Park Chung-hee’s leadership, a historical site was created to commemorate the protagonists of unification, and documentary paintings served as educational tools for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